

■ 세계로 진출하는 한국 배우들

# 가자, 이제는 '월드 스타'



이병헌



김윤진

이병헌 美·佛 합작 '비와 함께 오다' 출연  
정지훈 할리우드서, 정우성 일본서 '헐헐'  
김윤진 성공 가도...전지현도 美 촬영 마쳐



정지훈(비)

정우성



전지현

한국 대표 배우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하다. 한국에서 제작된 작품들을 들고 외국 관객들과 만나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직접 할리우드 등으로 진출, 현지 배우들과 어깨를 겨루며 당당히 경쟁하고 있다.

영화 배우 이병헌은 미국, 일본의 대표 배우와 함께 프랑스와 미국의 합작 영화 '비와 함께 오다(Come with Rain)'를 촬영 중이다.

'그린 파파야 향기' '씨클로' 등 국내에도 잘 알려진 영화의 메가폰을 잡은 트란 안 흥 감독 작품인 '비와 함께 오다'는 전직 경찰관 출신 사립탐정이 행방불명된 아시아 부호의 아들을 찾아 나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 이병헌은 살인에는 냉정하면서도 사랑 앞에서는 여린 홍콩 압록가의 두목 수동포 역을 맡았다.

'비가 함께 오다'에는 '진주만' '썬시티'의 조시 하트넷이 주인공 클라인 역을 맡았으며 일본 최고의 배우 기쿠리 타쿠야가 클라인이 찾는 시타오로 출연 중이다.

대사는 모두 영어로 이루어지며 2008년 미국과 프랑스 개봉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 공개된다.

가수 '비'로, 배우 정지훈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비는 '매트릭스' 시리즈를 만든 워쇼스키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스피드 레이스'에 참여하고 있다.

3천억원의 제작비가 투입된 '스피드 레이스'는 1960년대 제작된 일본 애니메이션 '마하 고고'(Mach Go Go)를 바탕으로 비는 미국에서 방영돼 큰 인기를 끌었던 일본 애니메이션을 원작으로 한 작품. 비는 이 영화에서 극의 갈등을 풀어나갈 키를 가진 동양인 레이

서 '대조 토고칸'으로 출연하며 '내겐 너무 아절한 그녀'의 에밀 허시를 비롯, 수잔 서랜든, 크리스티나 리치 등 할리우드 스타 배우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다.

현재 독일에서 한창 촬영 중인 '스피드 레이스'는 내년 상반기 세계 167개국에서 개봉 예정이다.

비는 현재 다른 할리우드 영화사로부터 원톱 영화의 남자주인공 출연제인을 받는 등 할리우드에서 인지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배우 뿐 아니라 감독으로의 열정도 갖고 있는 정우성은 일본의 인기 만화 시리즈인 '시티 헌터'를 한·일 양국에서 각각 드라마와 영화로 만드는 합작 프로젝트에서 일본의 TV를 통해 방영될 드라마 시리즈의 주인공 역을 제안 받았다.

호조 쓰카사의 인기 만화를 한·일합작 드라마와 영화로 만드는 '시티 헌터' 프로젝트에는 일본의 대표적 영상콘텐츠 제작사인 가도카와와 한국의 사이더스FNH 등이 참여한다.

정우성이 제의를 받은 일본판 드라마는 20부작 미니시리즈로 제작돼 내년 초계 방영될 예정이며 정우성 외 다른 출연진은 모두 일본 배우로 캐스팅할 예정이다.

한편 CF 이외에는 국내 영화계 활동이 뜸한 전지현은 할리우드 영화 '블러드 : 라스트 뱀파이어' 촬영을 마쳤다.

또 현재 한국에서 영화 '세븐데이스'를 촬영 중인 김윤진은 미국 인기 드라마 '로스트'에서 회당 1억원에 가까운 출연료를 받는 등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주말 극장가

영 화	상영극장
내 생애 최악의 남자	롯데(첨단),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하남·상무), CGV(첨단·상무), 씨너스 전대, 프리미어스 광주(제일·상무), 하이
엄정아·탁재훈 주연의 로맨틱 코미디. 15세 관람가.	
디스터비아	롯데(첨단), 메가박스, 콜롬버스(상무), CGV(첨단·상무), 씨너스 전대, 하이
스필버그가 제작을 맡은 스릴러물. 12세 관람가.	
라파에트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하남·상무), CGV(첨단·상무), 씨너스 전대, 프리미어스 광주(제일·상무), 하이
역사상 최초의 전투비행단 라파에트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전쟁영화. 15세 관람가.	
미스터 브룩스	롯데(첨단), 메가박스, 무등, 엔터, 콜롬버스(하남·상무), CGV(상무), 씨너스 전대, 프리미어스 광주(제일·하이)
연쇄 살인범의 이야기를 다룬 스릴러물로 캐빈 코스트너가 주연을 맡았다. 18세 관람가.	
사랑의 레시피	롯데(광주·첨단), 무등, 콜롬버스(하남·상무)
레스토랑을 배경으로 전개되는 캐서린 제타 존스 주연의 로맨틱 코미디. 15세 관람가.	
두 사람이다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하남·상무), CGV(첨단·상무), 프리미어스 광주(상무), 하이
강경욱의 동명 만화를 원작으로 한 판타지 공포물. 18세 관람가.	
사랑방 선수와 어머니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하남·상무), CGV(첨단·상무), 씨너스 전대, 프리미어스 광주(제일·상무), 하이, 엔터
코믹 연기의 달인 김원희·정준호 주연의 코미디. 12세 관람가.	
심슨가족 더 무비	롯데(첨단), 무등, 콜롬버스(하남·상무), CGV(첨단·상무), 하이, 엔터
말썽꾸러기 가족의 삶을 그린 애니메이션. 12세 관람가.	
죽어도 해피엔딩	롯데(광주·첨단), 무등, 콜롬버스(하남·상무), CGV(첨단·상무), 씨너스 전대, 프리미어스 광주(상무), 하이
에지윌 주연의 이색 코미디물. 15세 관람가.	
만남의 광장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엔터, 콜롬버스(하남·상무), CGV(첨단·상무), 씨너스 전대, 프리미어스 광주(제일·상무), 하이
임창정 주연의 코미디물, 교사가 꿈인 영남은 삼청교육대에 지원한다. 12세 관람가.	
스타더스트	메가박스, 무등, CGV(첨단·상무), 씨너스 전대
빅토리아 여왕 시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 원작인 판타지 영화. 전체 관람가.	

'남은 먼 곳에' 정진영·엄태웅 등 합류

이준의 감독이 10월 곧바로 촬영에 들어갈 '남은 먼 곳에'(제작 타이거픽처스, 공동제작 영화사 아침)의 남자 배우 진용이 갖춰졌다.

수애가 여주인공으로 확정된 상태에서 정진영, 엄태웅, 정경호가 합류한다.

정진영은 위문공연단 정만 역을 맡아 또 호흡을 맞춘다.

정만은 빛에 쫓겨 베트남으로 위문단을 꾸려 떠나면서 시골 아낙 수애(수애분)를 보컬로 데려가는 인물로 이기적이고 둔만 밝히는 속물 캐릭터다.

엄태웅은 수애의 남편 삼길 역을 맡아



정진영

엄태웅

한 인간이 참혹한 전쟁을 견디는 모습을 그리며 정경호는 위문공연단에서 수애를 보살피고 주는 인정 많은 용역을 연기한다.

/연협뉴스

12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 중 평사오 감독 '집결호' 확정

제12회 부산국제영화제(10월4~12일)의 개막작이 중국 평사오 감독의 '집결호(Assembly)'로 확정됐다.

또 폐막작은 일본의 안노 히데아키의 애니메이션 '에반게리온 신극장판 : 서(序)(Evangelion 1.0: You Are (Not) Alone)'로 정해졌다.

개막작 '집결호'는 '아연' '천하무적' '일선탄식' 등으로 중국 최고의 인기 감독으로 인정받고 있는 평사오 감독의 신작.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월드 프리미어로 상영된다.

/연협뉴스

엄정아·탁재훈 표 '상큼한 로맨틱 코미디'

주목! 이영화 '내 생애 최악의 남자'



'여성생 VS 여제자'를 통해 코믹 연기를 보여준 엄정아와 재기 넘치는 탁재훈이 주연을 맡은 로맨틱 코미디.

10년째 친구로 인연을 맺어온 주연과 성태는 신세 타령을 하며 술을 마신 후 하룻밤을 같이 보낸다. 술기운으로 빚어진 사고로 생각하며 다음날 다시 만나 우정을 다진하던 두 사람은 또 다시 술에 취해 다음날 한 침대에서 눈을 뜬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주연과 성태는 결국 운명이라 생각하고 결혼을 하지만 두 사람 앞에 꿈에도 그리던 이상형이 나타나면서 갈팡질팡하게 된다.

뮤지컬 배우 출신인 신성록과 윤지민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15세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http://cafe.daum.net/furumin

마늘주사 후루민을 치료하세요.

☎ 062-383-6883

마늘주사 후루민에 투약하신 분, 약명 환장님 및 일반 투약자를 모십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당신을 고품격 최상의 VIP로 모십니다.

34+48